



파트너님께,

Qantas가 대한민국(이하 '한국') 발권의 표준 여행사 수수료에 적용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
2023년 9월 1일부터 한국의 '081' 티켓 stock으로 개시, 예약 및 발행되거나 한국 BSP를 통해 결제되는 모든 티켓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
- **순수 호주 국내 부문 공시 운임 0%;**
- **뉴질랜드 구간을 오가는 순수 호주 공시 요금 0%;**
- **위에서 언급한 구간을 제외한 모든 노선의 공시 요금 1%;**
- **상기 수수료는 한국에서 개시, 예약 및 발행된 공시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.**

커미션 구조에 대한 이러한 변경은 전 세계 많은 여행사가 "서비스에 대한 수수료" 모델을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글로벌 트렌드와 일치합니다. 에이전시 파트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부가 가치, 탁월한 지식 및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

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상호 고객을 지원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에 대해 에이전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고 에이전트가 예약을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재 기존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용할 수 없는 에이전트를 위한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.

퀀타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.
질문이 있는 경우 Qantas 영업부에 문의하십시오.

감사합니다.

Simon Smith
General Manager South East Asia, Korea & Taiwan
Global Sales & Distribution

Qantas Airways Limited

